

기술표준원

news plus⁺

표준색 이름 '알기 쉽고 찾기 쉽게!'

기술표준원에서는 우리말 색이름과 글로벌 색이름이 각기 달라 산업계, 디자인·색채학계 및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8,000여 가지의 우리말·영문색이름이 병기된 디지털팔레트(디지털백과사전)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들은 우리말 위주로 색이름을 사용하는 반면 산업계, 디자인·색채학계 등에서는 영문색이름을 사용하면서도 각각 다른 영문색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색채의사소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계 측면에서도 관련 업계별로 자체 개발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팔레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각각의 색이름과 색채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육안으로 직접 색채를 비교해야 하고, 우리말 색이름과 영문색이름을 혼용해야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 예) 인쇄업계는 CMYK(Cyan, Magenta, Yellow, black) 사용, 디지털업계는 RGB(Red, Green, Blue) 사용. 디자

인업계는 Pantone(인쇄잉크들을 조색하여 일정한 색으로 혼합, 제작한 실용적인 색표계의 명칭) 사용 등

디지털백과사전에는 국·영문으로 관용색이름(부르는 색이름)과 계통색이름(학술적 색이름)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으며, 또한 색채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7가지 색좌표값도 모두 수록되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활용 가능하다.

'부르는 색이름'은 국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색이름을 뜻하며 아름다운 우리말 색이름과 영문색이름이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술적 색이름'은 체계에 따라 표준으로 정해진 색이름을 뜻하는데, 글로벌 스탠더드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말 계통색이름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문 계통색이름(ISOGENSI)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먼셀(Munsell) 색값과 연계하였다.

* 예) ISOGENSI 계통색 이름: 미국 국가표준, ISOGENSI에서 제정한 색명체계

Munsell 색의 속성을 색상, 명도, 채도로 규정한 현상계 시스템

‘7가지 색좌표값’은 산업계, 디자인·색채학계에서 우리말 표준색이름이나 영문색이름을 여러가지 색좌표값으로 변환하는데 활용되어 더 정확한 색채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제작한 디지털백과사전을 초·중등학교 및 색채·디자인 관련 대학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도 인터넷에서 옷·화장품·가구 등을 구매할 때 구매제품의 색채에 대한 표준색이름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글로벌시대에 맞춰 국내·외 판매자와 바이어간에 인터넷만으로도 색채에 관한 의사소통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디지털백과사전의 개발로 산업계, 디자인·색채학계의 색채표준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것이며, 또한 우리말 색채감성이 가미된 세계 디자인 브랜드 개발이 가능하다

기술표준원은 색채·디자인이 점차 강조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국민 색채감성의 향상과 산업계, 디자인·색채학계의 색채표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색채표준 정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보급 등을 촉진하기 위한 “색동코리아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백과사전은 기술표준원의 색동코리아 블로그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색동코리아 블로그는 기표원 홈페이지 (www.kats.go.kr) 메인화면 색동코리아 로고를 통해 연결되거나 www.kats.go.kr/colorstandard 로 직접 접속 가능하다.

"색동코리아"란?

- 국민 색채감성 향상을 위해 색채표준 체계 및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계에는 우리말 색채감성이 반영된

세계적 브랜드 개발을 위한 색채표준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임.

- 이 사업을 통해 초·중등학교 및 학계·디자인 전문가와 국가 공공디자인 관련 종사자들의 색채표준 활용 극대화를 도모함.



➤ 물질의 끓는점, 녹는점 데이터 표준화

각종 화학물질의 밀도, 끓는점, 녹는점과 같은 열역학 특성 데이터는 석유화학산업에서 혼합물의 분리정제 등 화학공정 설계, 공정개선 및 원가절감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기술표준원에서는 고려대학교 산·학 협력단을 「참조표준 데이터센터」로 지정하고 동 센터가 갖고 있는 유기화합물의 열역학적 물성 데이터를 가공·표준화하여 업계에 보급할 계획이다.

※ '참조표준'이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인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자료

※ '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역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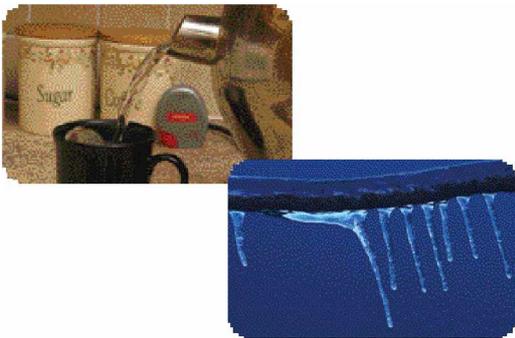
해당 분야 참조표준의 개발계획 수립, 데이터 수집·가공·평가를 통한 참조표준개발 및 국내외 협력수행

기술표준원은,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과 민간 R&D 투자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하여 2006년 8월 국가참조표준센터를 설립하고 이들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신뢰성을 평가한 후 참조표준으로 만들어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현재까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6개의 참조표준 데이터센터가 지정되어 대학, 연구소, 업체 등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 까지 20개 데이터센터를 지정·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유기화합물의 열역학적 물성 데이터센터」의 지정으로 향후 5년 동안 석유화학 분야 공정 및 설비 설계 시 필요한 참조표준 100여건을 우리 산업현실에 맞게 개발·보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비용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로봇 안전 국가표준 제정



청소로봇을 비롯한 생활 로봇의 안전성이 한 단계 높아질 전망이다. 로봇의 과열, 감전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고, 로봇의 디자인도 사용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국가표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인간과 로봇의 공존사회에 대비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청소로봇 등 서비스로

봇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5종의 국가표준을 개발하여 1월 17일부터 보급하기로 하였다.

- * 서비스로봇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으로 제조업에 활용되는 산업용로봇을 제외한 나머지 로봇을 의미하며, 청소 교육, 안내, 오락 로봇이 대표적이다.
- * 2006년말까지 전세계적으로 청소로봇 등 서비스로봇의 누적 판매수는 350만대로 예상되며, 국내에서는 2006년에 4만대 정도의 청소로봇이 보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맛벌이 증가,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로 가사, 생활 지원 등을 위한 청소 로봇, 교육 로봇, 안내 로봇 등이 많이 보급되고 있으나, 사람과의 충돌, 감전 등의 다양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표준이 없어, 이번에 국가표준을 제정하였다.

이번에 개발한 로봇 안전 표준에서는 로봇의 설계 및 제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계, 전기 분야의 안전 요구사항과 디자인 시 평가방법을 구체화하였다.

전기적 안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서비스로봇은 화기 또는 위험에 접촉되어 화재, 배터리 폭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감전보호, 배터리 등에 대한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과 평가방법을 안전 표준에 포함하였다.

디자인 안전

로봇의 외형은 사람들과 빈번하게 접촉하는 부분으로 유아, 노약자들이 로봇의 날카로운 형상에 의한 상해, 틈새에 신체가 끼이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로봇의 가장자리, 틈새 등의 형상에 대한 안전 기준과 시험방법도 포함되어 있다.

기계적 안전

가정에서 사용되는 로봇은 어린이의 장난으로 밟힘, 비틀림, 오동작으로 인한 추락 등의 외부 충격을 받



을 수 있어, 충격에 따른 로봇의 파손, 그로 인한 사용자의 상해 방지를 위해, 로봇의 기계적 강도에 대한 기준과 시험 방법도 포함되었다.

기술표준원은 로봇 업체에서 이번에 개발한 국가표준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로봇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비스로봇의 보급 확대를 위해 청소로봇을 포함한 서비스로봇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 개발과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바이오산업 분류 코드 국가표준 제정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



해 신뢰성 있는 통계분석자료에 의해 국가 정책 및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바이오산업 분류를 코드화하여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였다고 기술표준원이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바이오산업분야 세계시장은 '00년 540억 달러, '05년에 910억달러로 연간 14%의 성장을 이루어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고, '05년 국내 바이오산업 총 수급규모도 전년대비 15.2% 증가한 3조

5,626억원 규모로, 연간 평균 14%씩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바이오산업은 화학·의약·식품·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한국 표준산업분류 체계에 의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을 어렵게 하고, 기초 통계자료의 부족은 바이오산업 국가정책 및 예산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와는 다른 별도의 표준화된 바이오산업분류 체계 마련이 필요하였다.

금번 KS M 1000(바이오산업 분류 코드) 제정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예산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바이오산업 분류코드의 국가표준제정으로 바이오산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사용하는 이용기관에서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바이오산업 관련 통계작성의 표준화된 근거를 제시하여 경제구조·산업구조·타 산업과의 관계 등에 대한 분석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하였다.

본 분류코드의 분류대상 및 정립기준은 OECD 산업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를 반영하고, 기업들이 바이오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및 생산, 서비스단계에 바이오공학 기술이 이용된 산출물의 특성에 따라 바이오의약, 바이오화학, 바이오환경 등 8개 항목으로 하고 이를 다시 각각 나누어 총 51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부속서에는 바이오산업의 범위 설정에 활용되는 생물공학기술에 대한 분류코드도 함께 수록하여 미래 바이오산업 및 생명공학기술의 발전 비전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금번 바이오산업분류체계의 국가표준 제정에 대해 산업연구원의 최윤희 박사는 "OECD 각 회원국에서

도 바이오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이오산업분류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꼭 필요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체계적인 산업 지원으로 바이오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바이오산업분류코드의 표준화 추진으로 바이오산업의 성장기반을 확립하여 국가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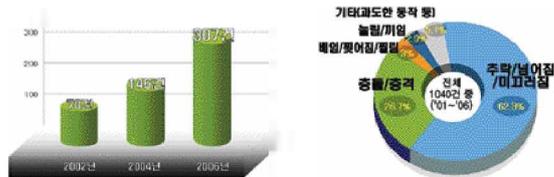


충격으로 인한 사고방지 등을 위해 놀이터 바닥에 모래나 충격흡수 재질 마감재를 깔아야 하고, 모래는 중금속 오염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 어린이놀이터가 보다 안전해진다.

기술표준원은 놀이터 안전사고 증가추세에 따라 놀이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놀이시설법)」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조에서부터 설치와 유지 및 보수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게 됐다.

〈어린이놀이시설 위해 사례 신고 현황〉

‘놀이시설법’ 시행에 따라 새로 만드는 놀이터는 반드시 모래나 고무 등 충격 흡수 재료를 바닥에 깔아야 하며,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놀이시설의 간격, 바닥재의 충격흡수력, 모래의 유해중금속 함유 여부 등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발생 현황

사고 발생 원인

※ 놀이시설로 인한 사고는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실제 신고 된 것 많은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에 대한 검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놀이터가 기생충 알 등으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애완동물의 출입을 막을 조경시설이나 울타리를 설치(편고사항)하는 한편, 경고문을 게시해야 한다.

놀이시설 관리 주체는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년에 1회 이상 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의 경우 타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유사교육도 인정한다. 또 손해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상시적인 안전관리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전국 62,350여개의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은 후 2년에 1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기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한편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와 수입, 설치에 관한 안전관리는 산업자원부에서 담당하고, 놀이시설의 유지관리는 설치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도에서 담당한다.

자동차용 온열시트 '과열 주의보'

11월 현재

설치 장소	이마트	공원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이동 복지시설	휴게시설 등 기타	합계
수량	33,201	6,507	10,184	10,755	202	1,501	62,350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용 온열시트 가운데 일부 제품이 표면온도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과 부산, 대구 등 전국 4개 도시 오프라인 매장에서 시판 중인 10개 업체 20개 제품(각 2개)의 온열시트를 구입해 안전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개사 6개 제품이 표면온도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6개 제품 중 4개는 값싼 수입산이어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무턱대고 구입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용 온열시트 가격은 6,000원대에서부터 30,000원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기술표준원은 온열시트 과열로 인한 자동차 화재 사고가 2006년 1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8건으로 증가한 만큼 열선이 너무 촘촘하게 붙어 있거나, 시트 안과 바깥에 스펀지가 섞여 있어 과열 우려가 있

는 제품은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온열시트는 겨울철 운전자들이 보온을 위해 운전석 위에 까는 제품으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자동차용품점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6만 여개가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소비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온열시트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지정 관리할 예정이며,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다.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소비자들은 KPS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하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 KPS마크 : Korea Products Safety (KPS)

생활용품 안전마크 부착 준수를 저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유아·생활용품 가운데 상당수가 KPS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구매 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40명의 소비자들로 구성된 제품안전 감시단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8개월 동안 전국에 유통되고 65개 품목의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 제

품들은 법적으로 **ks** 마크를 표시, 판매해야 하는 것들이었다.

그 결과 학용품, 유아용 섬유제품, 물휴지 등 어린이·유아용품 1,280개 가운데 30.9%인 395개 제품이 안전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용품은 470개 제품 중 34.9%인 164개가 안전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다.

또 팅택제, 탈취제, 표백제 등 생활용품 9개 품목 1,221개 가운데 319개(26.1%)도 안전마크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식탁 및 주방용품은 27개 제품 가운데 26개에 안전마크가 없었다.

안전마크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들은 '07.3.24 이후 신규로 안전인증대상품목으로 추가된 제품으로서 제조자의 안전마크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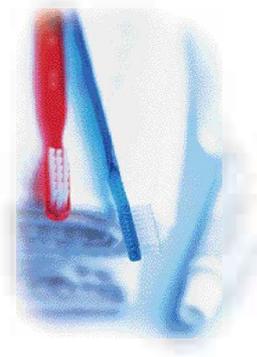
기술표준원은 이들 안전마크 미부착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홍보를 통해 안전마크 부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며, 당분간 소비자들은 제품구매시 안전마크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지난 2006년부터 중점 관리해오고 있는 비비탄총, 운동용 안전모 등 어린이용품 6개 품목과, 가스라이터, 세정제, 방향제 등 생활용품 7개 품목은 안전마크 미부착 건수가 전년에 비해 각각 48% 포인트와 11%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표준원은 안전마크 미부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재래시장이나 문방구 등 불법·불량제품 유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매장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동용품 안전사고' 경험 어린이 70%

어린이 10명 가운데 7명이 어린이용품을 사용하다가 안전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기술표준원이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과 공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서울, 경기, 충청, 대구, 광주 지역 어린이 303명과 학부모 497명(초등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310명, 7세 이하 어린이를



자녀로 둔 부모 187명)을 대상으로 6개 어린이용품(완구, 학용품, 이륜자전거, 어린이 액세서리, 운동용 안전모, 안전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사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총 학부모들 가운데 68.2%인 339명이 어린이용품을 사용하던 자녀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총 응답자 303명 가운데 53.7%인 163명이 어린이용품을 사용하다 안전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기술표준원 이석우연구관은 "안전사고를 경험했다는 어린이의 비율이 학부모에 비해 적게 나온 것은 어린이의 경우 안전사고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인증(**ks**) 마크를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어린이의 54.8%(166명)



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마크가 있어야 구입한다는 어린이는 전체의 21.2%에 그쳤다.

반면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확인한다' (40%)와 '용품에 따라 확인한다' (33.6%)는 응답이 '확인하지 않는다' (26.4%)는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7세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안전마크에 대한 의식이 높아, 10명 가운데 8명이 어린이용품을 구입할 때 안전마크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를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10명 중 7명이 안전마크를 보고 물건을 구입한다고 답했다.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어린이의 60.7%가 TV를 통해 얻는다고 답했으며, 학부모의 경우에도 59.8%가 TV 등 방송매체를 통해 얻는다고 응답했다.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7.8%였다.

기술표준원은 소비자들이 불법, 불량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 출시되는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조속히 제정,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제조업체들에게 어린이용품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산 가전제품 소비자 만족도 높다

기술표준원과 소비자시민모임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12개 전기전자제품의 품질 및 성능 등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와 개선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

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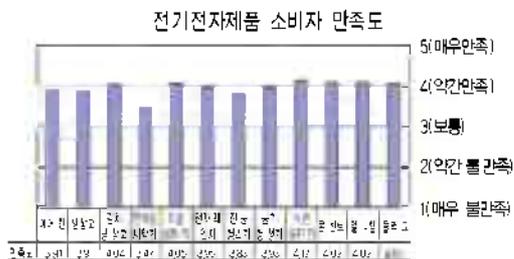
전기전자제품의 품질·성능, 소음·악취 등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



이다.

첫째, 전체적으로 성능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12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만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용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제품은 누전차단기였고, 가장 낮은 제품은 전자동 세탁기였다.

각 제품별 만족도(5점 만점 척도)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누전차단기(4.12), 멀티탭과 콘센트(각 4.09



씩), 드럼세탁기(4.05), 플러그(4.05), 김치냉장고(4.04), 전자레인지(3.95), 공기청정기(3.93), 에어컨(3.91), 냉장고(3.90), 진공청소기(3.83), 전자동 세탁기(3.47)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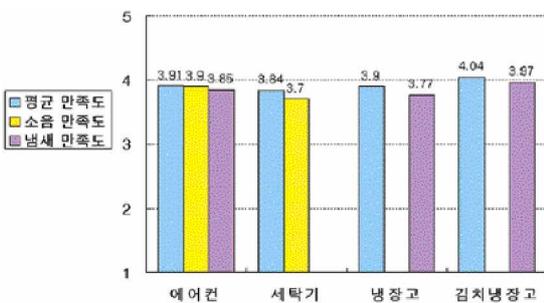
둘째, 전기전자제품의 소음이나 악취에 대해 소비자의 불만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에어컨과 세탁기는 소음으로 인하여, 냉장고, 김치냉장고 및 에어컨

권은 냄새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음과 악취는 감성적인 측면으로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성능규제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악취를 감소시키기 위한 탈취기술이 제품에 적용되고 있으나 시험법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소음 기준은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의 기준치에 대해서 소비자가 불만을 느끼고 있어 기준치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사용하고 있는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 소비량(소비전력량)을 알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모른다고 답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의식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제품들의 특징은 보급률이 높고, 비교적 사용빈도가 높은 제품으로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에너지 소비정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 소비자들에게 고유가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저감 필



요성에 관한 맞춤형 홍보가 필요한 대목이다. 넷째,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제품 정보의 부족으로 소비자들이 심적인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도 조사되었다. 이는 제품 자체의 품질이나 성능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제공의 부족으

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우려를 하는 경우이다. 전자레인지의 경우, 현재 전자파에 대한 기준이 있고 제조업체마다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는 부분이지만 전자파 검사 여부에 대한 표시 등의 미비로 소비자들이 전자파 발생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에어컨의 냉방성능에 대한



불만은 제품 자체의 불량 가능성이 매우 적은 항목으로, 제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냉매누설이나 배관연결 불량 등 불완전한 작업에 기인한 불만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전기전자제품 사용시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정부기관에 시험방법이나 기준의 개선을 위한 규격 검토를 요청하였다. 한편,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에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하여 제품의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소비자들의 올바른 제품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효율 전기전자제품 사용을 위한 소비자 정보 제공과 에너지 절약에 대하여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제품에 반영되도록 국가규격의 정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불만사항으로 나타난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악취에 대한 시험방법과 기준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요구 수준을 만족시키고 세계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이 제고 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표준 2008. 2

